മ

뉴스홈 | 최신기사

[우크라 침공] 우크라가 핵무장? "푸틴, 침공 정당화하려 음모론까지"

송고시간 | 2022-02-24 17:08











황철환 기자 기자페이지

핵포기 대가로 안보보장 이행 요구하는 우크라에 '핵무장 추진' 억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키예프 시내에서 경찰이 러시아군이 발사한 미사일의 잔해를 살피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새벽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시작전 을 명령하면서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갖도록 놓아둘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내 극단세력이 "핵무기 보유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 다.

하지만, 정작 우크라이나는 1994년 핵무기를 포기할 당시 미국과 영국, 러시아 등과 맺은 안전보장 약속의 이행을 당사 국들에 촉구해 온 입장임을 고려할 때 이런 주장에는 황당한 측면이 없지 않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 핵무기로 무장할 계획 을 추진 중이란 음모론까지 동원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푸틴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1일 대국민 담화 전체 분량의 3분의 1가량을 '우크라 이나 핵무장설'에 할애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만들려 한 다. 이건 허풍이 아니다"라면서 미국도 우크라이나 영토에 핵무 기를 배치할 계획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 험 또 불합격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



1962년 옛 소련이 공산권 쿠바에 미국을 겨냥한 핵미사일을 배 치하려 시도했던 쿠바 미사일 위기 때와 비슷하게 이번에는 미국 이 러시아의 턱 밑에 핵미사일을 가져다 놓으려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튿날 기자회견에서도 "우크라이나가 대량살상무기(WMD)를 손에 넣는다면 세계와 유럽의 상황이, 특히 우리에게는 급격히 바뀔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러한 실질적 위험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작 우크라이나에는 핵물질 확보를 위한 기초적인 기반시설조차 없는 실정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 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에 미국 핵무기가 배치된다는 것도 현재로선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인데도 푸틴 대통령은 이러한 주장을 진지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키예프 주변에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이 이뤄지자 키예프 시내 지하철역에 주민들이 대피해 있다. [AFP 연합뉴스, 재 판매 및 DB 금지]

우크라이나는 1994년 미국, 영국, 러시아 등과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당시 세계 3위 규모였던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영토의 온전성과 독립적 주권을 보장받았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옛 소련 시절 자국에 배치됐던 핵탄두 1천800개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모두 러시아로 반출해 폐기했다.

문제는 부다페스트 각서에는 '안전보장'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가 타국의 공격을 받을 때 군사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9일 독일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의 이행을 논의하기 위한 관련국 회의 소집을 촉구하면서 회의가 소집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각서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모든 권리를 지닌다"고 경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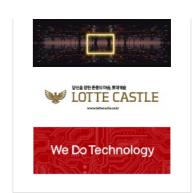
이는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란 의미로 받아들여졌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를 핵포기에서 핵보유로 선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발언은 우리를 겨냥한 것"이라면서 "그들은 소련 시절에서 비롯된 광범위한 핵능력과 선 진적 핵산업, 교육기관 등 신속히 (핵무장을) 단행할 모든 걸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 러시아를 공격할 핵무기 발사기지가 되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NYT는 이와 관련한 푸틴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백하다면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무기 발사대가 되는 길을 피할 유일한 방안은 점령하거나, 친러 정부가 들어서도록 하는 것이란 이야기"라고 말했다.

hwangch@yna.co.kr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 관련기사

[우크라 참공] 국제사회 규탄...유럽·나토 "즉각 대응할 것"(종합)
[우크라 참공] "미국, 24일부터 러시아에 전면 제재 검토"(종합)
[우크라 참공] 신냉전 현실로... 북핵 등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
[우크라 참공] 바이든, 우크라 대통령과 통화..."계속 지원"(종합)
[우크라 참공] 우크라 정부, 국제사회에 "즉각 행동" 호소
푸틴, 우크라 새벽 참공 강행... 미 "동맹과 기혹한 제재"(종합2보)
[우크라 일촉즉발] "푸틴엔 내주 증시보다 30년뒤 역사평가 중요"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2/24 17:08 송고

#핵무장 #핵무기 #블라디미르 푸틴 #음모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 02:22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나 [영상] 곡시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영상] 목사포·주왕벨기·영갑자...美, 까텼던 무기를 결국 우크라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문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모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개월만 종료...마스 크는 그대로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어"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집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 142 찰에 고발

2 '유퀴즈' 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 65 안맞아"(종합)

3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 61 대병원 자원봉사

4 두문불출이재명,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활 ☞ 56 동재개 예열?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 40 회에정"

뭐하고 놀까? ## 👺 →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사베포

테미벌뉴스 핫뉴스 톰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강 영문연강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톱뉴스사설 이시각.헤드라인 **광고** KTX.열차 AREX.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웹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حربی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메스 한민족센터 K결정기회단(K-ODYSSEY) 채용 IR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성기홍 [편집인]조채희

Yonhapne